보성군, 전남대와 손잡고 '지역산업 전문인력양성'

목공예·뉴미디어 농식품 유통 등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시
지역 자원 활용…경제 모델 구축
"취·창업 기회 확대 기대될 것"

보성군이 전남대와 손잡고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선과 지역경제 자립을 꾀한다.

보성군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협력해 5일부터 12월 6일까지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 및 혁신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성군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화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기획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 기업 혁신을 이끌고 지역 경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친환경 목공예 디자인 자격증 과정 △농식품 유통 뉴미디어 인력 양성 △스마트팜 화분매개벌 증식 우수 농장 견학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 등이다.

'목공예 디자인 자격증' 과정은 11월 5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보성군의 목재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목공예 기술을 배우고, 반복되는 실습을 통해 목공예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수강할 예정이다.

'농식품 유통 뉴미디어 인력 양성' 과정은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1시부터 6시까지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한다.

이 과정은 디지털 마케팅 및 뉴미디어 활용을 중심으로 지역 농식품 유통과 관련된 종사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는 온라인 스토어 창업과 뉴미디어를 통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 과정은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 지역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보성군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해 지역 농수산식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성군과 전남대학교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업 혁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보성군의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순천시, 공영자전거 시스템 개편 시민 이용 편의성 대폭 향상

순천시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 공영자전거 '온누리'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온누리' 공영자전거는 지난 10월부터 운영을 재개하며, 일일 이용요금 3시간 무료화 방침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일 평균 300명 이상이 회원가입을 하였고, 총 1만 8900여 명이 이용하여 지난해 월평균 대비 이용객이 43% 증가했다.

도입 15년을 맞은 '온누리' 공영자전거는 중·단거리 이동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왔으나, 불편한 이용방법으로 인해 이용자 감소 문제를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4억6000여만 원을 투입, 공영자전거 400대를 전면 수리하고, GPS, QR코드 및 전용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차세대 대여·반납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시에는 대중교통과 연계된 59개소의 자전거 대여소가 설치돼 총 400대의 온누리 자전거가 이용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대여소와 자전거를 각각 100개소, 600대로 확대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관광 굿즈 공모전' 개최 3만원 이하 실용적 기념품 발굴

순천시가 '2024 순천시 관광 굿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관광객들이 순천을 기념할 만한 실용적인 기념품을 발굴하여 지역 관광 소득을 증대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3만원 이하의 순천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관광명소, 시정 캐릭터 등 순천을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소품 위주의 관광기념품이다.

순천 소재 사업자 또는 법인을 갖고 있는 업체, 순천시민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순천시청 관광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상금은 대상(1작품) 500만원, 최우수(1작품) 350만원, 우수(2작품) 200만원, 장려(5작품) 150만원으로 시상금은 수상 작품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광과 체험관광팀(061-749-58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시가 지난 2일 광양읍 국민체육센터에서 '2024년 지역아동센터 제11회 초록빛깔 한마음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지역아동센터 제11회 초록빛깔 한마음큰잔치

광양시가 지난 2일 광양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원봉사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역아동센터 제11회 초록빛깔 한마음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식전 행사로 태인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모듬북 공연을 펼쳤고 공연 후 시장 유공 표창식이 진행됐다. 박오희(꿈샘지역아동센터), 조영란(백운산지역아동센터), 정애자(광양읍지역아동센터), 김한솔(덕례지역아동센터), 장효숙(전남사회복지사협회) 씨는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기념식 후 2부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 참여자들은 안전교육, 몸풀기 운동, 협동 지구 굴리기, 전략 줄다리기, 협동 파워볼 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광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김선아 회장은 "아동들이 체육행사에 참여하며 매우 즐거워했고 종사자와 아이들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는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촘촘하고 안전한 아동 돌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지역아동센터는 총 18개소(광양읍 10, 옥룡 1, 옥곡 1, 중마 4, 광영 1, 태인 1)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은 학기 중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센터별 운영시간 상이)까지다. 관련 문의는 각 지역아동센터 및 광양시 여성가족과(061-797-2693)로 가능하다.

광양=안영준 기자

'제50회 고흥군민의 날' 행사, 군민 대통합

고흥군이 지난 1일 '제50회 고흥군민의 날' 행사를 우천에도 불구하고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대통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제50회 군민의 날 행사는 고흥인의 자긍심과 희망을 고취하고, 군민과 향우가 함께 어우러지는 단결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고흥의 3대 미래 전략인 우주, 드론·UAM, 스마트팜을 프로그램에 녹여내어 고흥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군민들에게 제시하여, 고흥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다.

특히, 2018년 이후 6년 만에 열린 제50회 군민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의 시작을 알린 입장식에서는 △읍면의 역사와 문화,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여 참여 군민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으며, 과역면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유자를 품은 우주인 퍼레이드 △군민의 상과 감사패 수여 △고흥의 미래가 반영된 3대 미래전략 주제 퍼포먼스 △국기원 태권도 시범 공연 △인기가수의 축하공연 등 군민 화합 한마당 행사 △스마트팜 생산품 시식 코너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됐다.

군민의 상은 도덕면 출신의 4선 국회의원이자 고향인 고흥군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홍근 국회의원이 수상했으며, 태권도를 세계에 널리 알린 고흥읍 출신의 재독대한태권도 사범협회 서윤남 고문이 영광의 감사패를 수상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50회를 기념하는 행사를 우천으로 인해 팔영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했다.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3대 미래 전략인 우주, 드론·UAM, 스마트팜을 통해 고흥의 발전상을 제시한 행사였던 만큼, 앞으로도 군민과 향우가 우리 고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구례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성료

구례군은 지난 1일 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통합을 위한 '2024년 구례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김종택 회장을 비롯한 도내 21개 시군 지체장애인협회장이 함께했으며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각 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대형 버스를 마련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는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장 수여 및 국악 공연, 명랑운동회 및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장재섭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장은 "장애인한마음대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행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응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 격려 공영민 고흥군수

고흥군은 4일 풍양면 죽시창고에서 2024년산 공공비축미 첫 수매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4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건조벼 매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공영민 고흥군수는 벼농사 작황 상태를 점검하고, 쌀값 불안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올해 고흥군 공공비축 수매는 친환경 벼와 가루 쌀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8.8%가량 증가한 9335톤으로 매입 대상 품종은 새청무와 강대찬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된다. 농가는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당 4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받으며, 연말에 최종 정산을 받게 된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외 판로 다변화를 위해 해외 수출시장 개척, 대형 유통업체 협약,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며 "생산 농가에서도 품종의 다변화와 고품질화를 통해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호우 및 벼멸구 피해 벼 전량을 매입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물량을 추가 배정하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므로, 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흥=심정우 기자**